



물이 살고, 공기가 살고, 사람이 산다
——
흙이 살아야

인터뷰 · (사)흙살림 이태근 회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업보다 휴대폰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단법인 흙살림(www.heuk.or.kr) 이태근(46) 회장이 꺼낸 첫마디는 휴대폰과 농업의 부등호였다. 외화벌이가 되는 휴대폰 사업과 이제는 애물단지처럼 취급되는 농업이 나란히 놓여 있다면 어느 쪽에 입을 벌린 부등호가 옳은 걸까? 그는 단호히 농업이라고 말한다. 이대로 가다간 휴대폰 팔아서 물 사먹고 공기 사먹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흙살림은 1991년 ‘괴산 미생물 연구소’로 시작해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는 단체다. 이 회장은 십 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단체를 꾸려오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과 미생물 등을 이용한 농자재를 개발해 왔고 현재는 농산물인증제, 즉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흙을 살린다, 혹은 미생물이나 지렁이 등 흙에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 생명을 살린다는 뜻의 순우리말 '흙살림'에는 이 단체가 추구하려는 흙사랑, 생명사랑의 의지들이 숨어있다. 그런데 다른 환경요소를 제쳐두고 왜 흙부터 살려야 할까? 이 회장의 말에 따르면 흙이 살아야 물이 되고, 물이 살아야 공기가 살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구조를 따로 떼어놓고 그저 생수나 사먹는 식으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조제와 화학비료로 찌든 현재의 국토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이 와도 이겨내듯 흙이 건강하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도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흙은 면역력 없는 환자가 약과 주사만 잔뜩 맞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약을 먹은 나머지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상태죠. 해충의 천적들이 씨가 마르다 보니 이젠 별까지 수입한다니까요."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농민 책임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언젠가부터 농부들이 풀을 원수로 보고 제조제를 갖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는 풀을 농사에 유익한 유기물 즉 퇴비로 봤습니다. 그걸 베다 소에게 먹이면 훌륭한 사료가 되죠. 자연을 적대적이지 않은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수입한 제조제를 마구 뿌려대서 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 가는 들에 다시 화학비료를 뿌리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지력과 같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전 농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반대를 외치려면 미국의 비료부터 끊어라! 그 정도 결단을 해야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죽을 각오를 해야 겨우 끊듯이 몇십 년 습관화된 농약도 마찬가지로. 이 고리를 끊어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자연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고 이는 결국 우리의 모든 환경에 직결된다. 농업만 따로 놓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셈이다. 그는 도시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도시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나가지만 하면 처리가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 나온 찌꺼기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불일 보고 물 한 번 쓱 내리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이 바다로 가고, 바다 속의 참치가 그 물을 먹고, 그 참치를 다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인 셈이죠."

그래서 그는 도시의 음식물 찌꺼기를 농촌의 퇴비로 쓰는 순환구조를 연구 중이다. 도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도시 근처의 텃밭들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흙살림은 이렇게 농업과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해마다 '손모내기 축제'라는 작은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눈에 우렁이 넣기, 쌀겨 뿌리기 등 들밥을 먹어가며 유기농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한 명이 일년간 먹어치우는 땅이 60평이라는데, 그중 '최소한 한 평이라도 작물을 심어보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알아야, 느껴야, 체득해야 변한다는 것이다.

헌데 궁금한 점이 또 생긴다. 알다시피 농민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선 비싸게 느껴지는 상품이 아닌가? 누구나 그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일단 유통에서 마진을 다 먹어버리는 구조를 바꿔야죠. 생산자는 좋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을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기농도 제대로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직거래 라인을 뚫으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헌데 지금은 한 쪽은 싸게 팔고 다른 한 쪽은 비싸게 사먹거든요. 이런 시장 유통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농간의 활발한 운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을 중요시하는 전국민적 인식이 선행되어야겠죠"

그는 5월 중순에 북한에 다녀왔다. 미생물을 지원하고 유기농을 보급하기 위해서 강원도 고성외 한 농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화학비료나 제조제 지원은 많이 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건강한 농법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데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북한은 아직 환경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처럼 '모든 개혁은 유기농으로 통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심지어 실업자 문제도 농업으로 풀 수 있다고 그는 장담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그렇게 높아도 직원은 사만 명밖에 안 쓰지 않느냐, 농사는 돈은 안 되지만 사람은 많이 필요하다, 농업을 해서 먹고살게만 해주면 이렇게 기피하지는 않고 고용효과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유기농은 자연친화적 삶을 산다는 자긍심도 있어 농민 스스로를 자조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지의 얘기였는데 무척 흥미로운 해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최근《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이란 책을 펴내면서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의 하나가 옥토를 사막으로 바꾼 것이다"라고 썼다. 그의 말이 옳다. 농업은 휴대폰 만드는 일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콘크리트와 고층 아파트와 아스팔트 위에 이루어져 있지만 그 한 꺼풀 속에는 혈떡이는 대지의 숨소리가 있다. 지구를 어깨에 맨 아틀라스처럼 땅은 인간의 욕망으로 점점 무겁고 거칠어진다. 이제 우리가 그 어깨의 짐을 덜어줄 때다. 대지가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있을 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

취재 김성중(자유기고가)·사진 박신우 기자